

경북도, 원전 생태계 회복 위해 한국전력기술과 맞손

노사 합동 비전 선포·전략 구체화
SMR·원자력 수소 업무협약 체결
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합의도



김천 한국전력기술 본사에서 열린 '지속가능 성장&도약을 위한 Vision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철우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6일 김천 한국전력기술 본사에서 열린 「지속가능 성장&도약을 위한 Vision 선포식」에 참석해 우리나라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전력기술과 상생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기술은 국산 에너지 기술 자립을 목표로 1975년 설립돼 원전 종합설계와 원자로계통설계 기술을 함께 보유한 세계적인 회사다.

한국표준원전 'OPR1000'과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차세대 원전 APR

1400, 그리고 중소형 원전인 SMART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전의 설계 기술을 갖추고 있다.

이번 선포식은 정부의 에너지 안보

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등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국정과제에 맞춰 한국전력기술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 "Technology for Earth, Energy for Human(환경을 생각하는 기술, 사람을 향한 에너지)"이라는 노사 합동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전략 등을 밝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경북도는 미래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자력 수소 기술개발을 위해 한국전력기술,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과 함께 관련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수출·사업

화 기반 조성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경북도와 김천시, 김천시의회는 한국전력기술과 함께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생협력강화 업무협약」에도 합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국전력기술은 원전 설계기술 자립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뒷받침해 왔다"라며, "오늘 노사가 함께 발표한 비전 선포식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며, "오늘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들과 함께 우리나라 미래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해 경북도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광양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광양시는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 대상으로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 징수 ▲지방세정 운영 등 3개 분야 32개 항목에 대한 2022년 실적을 평가했다.

광양시는 3개 분야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해 상사업비 7,500만원과 포상금 700만원을 받게 됐으며,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광양(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부산시, AIoT로 관광폐기물

(지능형 사물인터넷)

회수·모니터링 기술 개발한다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선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과 추진

부산시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과 함께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을 활용한 관광지 재활용 폐기물 회수 기술 개발에 나선다.

부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인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산시설공단, 부산 지역기업인 코끼리공장·스마트뱅크와 추진 체계를 구성해 '관광지 자원 재순환을 위한 사물인터넷 활용 재활용품 회수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과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과제를 통해 2023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여간 총 29억 4000만 원을 투입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행량, 인구 밀집도 데이터를 통한 폐기물 분리수거 문제 해결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실증은 부산시민공원에서 이뤄진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1차 연도에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수집·구축 ▲재활용 수거 효율 향상 기술 ▲CCTV 유동인구 데이터 세트 ▲수거기 재배치 및 차량 동선 최적화 설계, 2차 연도에 ▲이동형 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기 ▲폐기물 분류를 위한 초분광-인공지능 인식 모델 ▲CCTV 상황 인식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 3차 연도에 ▲CCTV 인구 과밀도 예측 모델 ▲재활용 폐기물 수거함 동적 재배치 및 수거 차량 동선 최적화 기술 실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이번 공모에 선정된 과제가 부산시민공원 실증을 통해 관광지 자원 재순환 및 다중 밀집 인구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술 실증 이후 확산 사업을 추진해 부산시가 관광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유도를 통한 관광지 자원 재순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

만인산,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대전시내 학교 대상 추진
환경부 2~3억 가량 지원

대전 초·중·고 학생들이 쓰레기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관련 체험과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주목된다. 환경부가 2~3억원 가량 지원한다.

대전시 공원관리사업소 만인산푸른학습원은 '환경과 친구되기', '환경교구를 활용한 재미있는 환경교구 체험교실'이 환경부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과 친구되기'는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만인산자연휴양림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된다. 숲 자원을 활용해 쓰레기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올 상반기 3월 23일~6월 15일, 하반기 9월 11일~11월 9일 나눠서 진행된다. 만인산푸른학습원에서 대전시내 학교 대상으로 총 21회 1378명(1회 40명 내외) 규모로 추진된다.

'환경교구를 활용한 재미있는 환경교구 체험교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을 직접 찾아가 진행된다. 퍼즐게임을 통한 갯벌 알기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팽귄 블록 놀이 등이 마련됐다. 올 상반기 3월 29일~6월 30일, 하반기 7월 3일~11월 17일 진행된다.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총 119회 2630명(1회 30명 내외)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전=원승일 기자 won@



(좌)아바텍과 경상북도, 구미시 간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기념촬영 사진(왼쪽부터 이달희 경북도경제부지사, 박명섭 (주)아바텍 대표, 김장호 구미시장,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장)

구미시, MLCC 생산 '강자' 된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

(주)아바텍, 1018억 투자·240명 고용

구미시는 16일 시청에서 (주)아바텍 박명섭 대표, 이달희 경제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등이 참석해 (주)아바텍과 경상북도, 구미시 간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주)아바텍은 2024년까지 총 1018억원을 투자해 240명을 신규 고용하고 산업용 및 차량용 고(高)용량, 고(高)전압 MLCC(Multi-layer Ceramic Capacitors,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추가 증설, 생산할 계획이다.

MLCC는 전기회로에 전기를 저장하는 부품으로 전기를 활용하는 모든 전자기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앞

은 두께 내부에 다량의 전기를 축적해 필요시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는 등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다.

(주)아바텍은 2019년부터 MLCC 기술을 자체 개발해 솔라엠티테크놀로지(이스라엘), LG디스플레이(주) 등에 납품하기 시작했으며 5G를 비롯, 급격히 발전하는 IT·전기자동차 산업에 발맞춰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돌입하기 위해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

한편 (주)아바텍은 2000년도 설립됐으며, 액정표시장치(LCD) 식각 및 도금 진공 박막 코팅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생산해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PC 등에 사용되는 LCD 패널의 식각·코팅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구미(경북)=류희철 기자 rhc1369@

경북교육청, 특수학급 교실 환경 개선

총 48교·65학급 지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공간 혁신 및 환경 개선 사업 대상 학교 지원'을 위해 도내 특수학교(급) 총 48교, 65학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수학급 환경개선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학교별, 지역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된 특수학급의 시설, 설비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또한 이번 사업은 교육 수요자 중심의 공간혁신형 교실 조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촉진하고 학습능력 향상과 감성을 키우는 미래형 특수학급 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발달과 감성을 키우는 놀이공간 ▲학생의 도전 행동 및 위기 행동 등의 중재를 위한 심리 안정 공간 ▲바리스타, 공예, 제과 제빵 등 진로, 직업교육을 위한 학습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조성한다.

노후된 특수학급 교실, 장애학생 중심의 공간조성이 미비한 교실에 대해 유·초·중·고 특수학급은 학급당 4000만 원 이내, 특수학교는 5000만 원 이내 총 20억 원을 지원하며 지원비는 진로직업교실, 치유공간, 쉼터, 여가공간 조성, 낡은 교실 리모델링비와 관련 기자재 및 물품 구입비에 사용된다.

/경북=장영우 기자

여수시

'연등천 저류지' 연내 착공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연등천 주변지역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연등천 저류지'가 연내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국도비 253억 원을 포함한 389억 원을 투입해 '연등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0년 빈도의 홍수량에도 대응할 수 있는 35만 톤 규모의 저류지를 설치하고, 하천시설물의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찾아 쉬 수 있는 친수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안동시

탈·누각 래핑 항공기로 홍보

안동시(시장 권기창)와 (재)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 이동원)은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항공과 협력해 안동의 탈과 누각(병산서원 만대루)이 래핑(wrapping)된 항공기(Boeing 737)를 통해 관광거점도시 안동을 홍보한다.

해외 잠재 관광객들에게 안동 관광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동의 전통과 문화를 담은 항공기가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세계 곳곳을 비행할 예정이다.

항공기 동체에는 하회별신굿탈놀이 캐릭터 이미지와 지역명 '안동'을 다양한 언어로 표기했다.

/안동(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부산시

'반려견 순찰대' 본격 운영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7일 동명대학교에서 '2023년 부산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부산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반려견과의 일상적 산책 활동에 '범죄예방 순찰'이라는 공격 임무를 접목한 시민참여형 치안 정책이다.

순찰대원들은 반려견과 산책 활동 중 지역 사회 곳곳을 다니며 범죄나 사고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순찰대에 선발된 반려견에게는 조끼가 부여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